

【논문】

외적 충격으로부터 어떻게 내면이 구축되는가?

— 데카르트의 물체 충돌 규칙과 스피노자의 변용(*affectio*) 개념 —

김 은 주

【주제분류】 근대 초기 자연 철학, 형이상학

【주요어】 충돌, 충격, 내부성, 외적 규정, 변용(*affectio*), 유동체, 인간 신체의 무른 부분

【요약문】 자기 본성의 법칙에 따른 삶과 외적 원인에 종속되는 삶의 대조에서 보이듯, 내부와 외부의 구별은 스피노자 윤리학의 근간이다. 하지만 이 구별은 그의 철학에서 가장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다. 내면성이 그의 철학에선 우선 신체의 개체성을 바탕으로 인식되며, 개체성은 또한 개체화의 견지에서 인식됨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경계 대신, 그가 표방하는 보편적인 기계론적 질서 내에서 한 물체의 내면이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묻는다. 특히 보존 속에서의 변화, 곧 ‘변용’의 개념을 밝히기 위해, 외적 인과성의 범형인 데카르트의 충돌 법칙이 스피노자의 초기 글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에서 재정식화되고 다시 『윤리학』에서 신체 변용 개념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검토한다. 결국 충돌하는 물체들 안팎의 ‘유동체’의 역할을 축으로, 기계론적인 외적 규정의 질서 안에서 개체의 내면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럼에도 개체가 왜 여전히 외적 규정의 질서 안에 머무르는지가 밝혀진다.

도 입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내부와 외부, 자신에게 고유한 것과 자신에게 낯선 것의 구별을 전제한다. 그의 윤리학은 **외적인** 강제에서 벗어나 **자기 본성**의

법칙에 따라 활동하기를 요구하고 이를 ‘해방’ 내지는 ‘자유’라고, 반대로 외적인 강제들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사실적인 무력함을 ‘예속’이라 명명한다. 그러나 고전적이면서도 상식적인 것 같은 이 구별은 스피노자 철학에서 가장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다.

주지하듯 스피노자는 자유의지(소위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를 부정함은 물론, 우리에게 가장 내밀한 것처럼 보이는 상상과 기억, 정념의 연쇄가 오히려 외적이며 우리 본성에 낫설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것은 “자연의 공통질서”, 곧 “외부로부터, 즉 사물들의 우연한 마주침으로부터 규정된” 질서를 따른다(E II, P29, Sc.). 심지어 그가 개체의 현행적 본질로 본 코나투스 역시 이처럼 “외부로부터 규정된 질서”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코나투스에 대한 의식은 우리 자신의 활동성에 대한 의식, 그리고 대개는 부적합한 인식으로서의 의식과 뒤섞이기 때문이다.¹⁾ 하기에 의식된 내면성에서 출발하여 내부와 외부로 구별하는 것은 가상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에 불과할 수 있다. 오히려 스피노자가 말하는 “내부”, 곧 각 개체의 “자기 본성의 법칙”은 각자 안에 항상 활동하고 있으나 모두에게 공통적이기에 각자의 내밀한 본성과는 무관해 보이는 이성, 곧 공통 통념들(*notiones communes*)과 동일시되는 듯 보인다.²⁾ 물론 공통 통념은 개체의 독특한 본질을 구성하진

* 본 논문은 2013년 7월 19일 강원대에서 개최된 서양 근대 철학회 하계 학술 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수정본이다. 스피노자 철학 연구사나 근대 철학사에서 본 논문의 위상에서부터, 세부 논변이나 개념 사용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요약과 예리한 문제제기를 해주신 논평자 이근세 선생님과 서양 근대 철학회 다른 선생님들, 그리고 본 논문에 대한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1) “정신은 명석관명한 관념들을 갖는 한에서나, 혼동된 관념들을 갖는 한에서나, 어떤 무한정한 지속에 걸쳐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자신의 이런 노력을 의식한다.”(E III, P9) *스피노자 저작들의 원문은 *Spinoza Opera, im Auftrag der Heidelberg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herausgegeben von Carl Gebhardt, Carl Winter, Heidelberg, 1925, 4 vols.*를 참조하여 번역했으며, 이를 축약해 G로 표기한다. 그리고 *Ceuvres de Desartes, ed. par Adam & Tannery, Vrin, 1996*은 AT로 표기한다. 그 외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는 인용시 PP로, 스피노자의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는 모두 PPD로, 『윤리학』은 인용시 E로 표시한다. 그리고 명제들의 경우 가령 『윤리학』 2부 정리 40의 주석은 E II P40 Sc.라고 표시한다. (그 외 Ax.: 공리, Cor.: 따름정리, Def.: 정의, Dem.: 증명, Lem.: 보조정리).
- 2) 『윤리학』 전체에 걸쳐, “외적(*externus*)”이라는 단어는 “외부 물체”나 “외적 원인”과 같은 표현을 통해 무수히 등장하지만, “내적”이라는 단어는 내가 아는 한, 단 두 번 등

못하며(E II, P32), 또 이런 본질과 관련되는 직관지는 단지 과정으로 제시 될 뿐이다.³⁾

이런 상황에서 환기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스피노자가 개체의 고유한 본성, 곧 개체성의 기준을 **자연학적** 견지에서 제시했다는 사실이다. 신체 부분들 간의 “운동 전달의 특정한 비율”(E II, P13 Sc. Def., Lem. 6) 혹은 “운동과 정지의 특정한 비율”(같은 곳, Lem. 5)이 그것이다. 이 정의는 외부와 구별되는 한 개체의 내면이 정신적인 것에 대한 참조 없이 연장적 질서 내에서 인식될 수 있음을, 그러나 또한 **공간적인 경계와는 무관함**을 알려준다. 이럴 경우 우리는 운동(그리고 정지)의 상대성이라는 기하학적 자연학의 난점에 부딪히게 된다.⁴⁾ 서로 운동을 전달하는 신체 부분들에는 우주 안의 무한하게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윤리학』 1부 정리 28에 명시되듯,⁵⁾ 이런 비율의 보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여전히 마주침에 의한 외적 규정의 질서, 곧 모든 변화가 오직 외적 충격을 통해 설명되는 기계론의 질서 속에 머물러 있다. 이를 감안할 때 환기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스피노자에게서 개체는 실체가 아닌 실체의 양태일 뿐만 아니라

장한다. 하나는 방금 언급된 E II, P29 Sc.에서 “내부로부터(*interne*) 규정되다”라는 문구 속에서도. 이는 “여러 사물을 동시에 응시함으로써 이 사물들이 어떤 점에서 서로 합치하고, 다르거나 대립되는지를 이해하도록 규정되는 것” 혹은 그런 식으로 “배치되어(*disponitur*)” 사물들을 명석 관명한 방식으로 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내적 원인”이라는 표현인데, 그것은 “자기만족(*acquiescentia in se ipso*)”의 정서를 수반하는 “내적 원인의 관념(*idea causae internae*)”이란 문구 속에서도(E III, P30 Dem.). 여기서 ‘내적’이란 단어는 타인과 구별되는 개체 자신을 가리키나, 이 관념은 대개 상상적이다. 아래에서 나는 이 ‘내적(*internus*)’이란 단어를 다른 것과 구별되는 한 개체의 고유한 본성의 의미로 사용하되, 우리말에서 공간성을 함축하는 ‘내부’나, 마음상태나 정신성과 흔히 결부되는 ‘내면’ 역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한편 스피노자에게서 ‘본성(*natura*)’은 ‘본질(*essentia*)’과 거의 등가이나, 외연이 더 넓다.

- 3) “이런 종류의 인식[직관지]은 신의 몇몇 속성들의 형상적 본질에 대한 적합한 관념으로부터 사물들의 본질에 대한 적합한 인식으로 나아간다[*procedere*]” (E II, P40, Sc. 2).
- 4) 이 “비율”이 정작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기 어려운 이유도 이것이다. 하기에 이 비율이 “단지 그[스피노자]가 완수해내지 못했던 세밀한 분석에 대한 자리표시자(*placeholder*)에 불과하다”는 J. Bennett의 지적은 타당하다. (1983, p. 232)
- 5) “모든 독특한 사물, 즉 유한한 사물, 그리고 규정된 실존을 가진 사물은, 그 역시 유한하며, 규정된 실존을 가진 다른 사물에 의해 실존하고 작동하도록 규정되지 않고서는 실존하고 작동하도록 규정될 수 없으며, 이 원인 역시[...].”

개체화 과정 속에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 개체의 내적 본성은, 존재가 아닌 생성의 견지에서, 단 생성 자체는, 이미 존재하는 개체가 외적 마주침을 통해 재생산되거나 변형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내부와 외부로 나누는 경계 자체보다, 스피노자가 표방하는 보편적인 기계론적 질서 내에서 어떻게 내면성이 **구축**되느냐를 묻는다. 또한 스피노자가 개체의 특정한 비율을 다소 정태적 관점에서, 즉 부분들의 변화나 대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개체가 ‘보존’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제시한다면, 나는 보다 역동적인 관점에서, 외적 충격 하에 일어나는 신체 ‘변화’, 곧 ‘변용(*affectio*)’의 메커니즘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를 기계론적인 외적 인과성의 범형으로 간주되는 데카르트의 물체 충돌 법칙에 대한 스피노자의 전유 방식을 통해 고찰한다. 단, 데카르트 충돌 법칙을 현대 과학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일은 본 논의의 관심사가 아니며, 그것에 대한 스피노자의 재정식화가 그의 변용 개념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만을 다룬다.

1절에서는 변용 개념이 안고 있는 자연학적 문제를 정식화한다. 이 문제를 물체 충돌 법칙을 통해 해명하기 위해, 2절에서는 먼저 데카르트 충돌 법칙의 지위와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본 후, 스피노자가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이하 『원리』)를 기하학적 스타일로 다시 쓴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이하 PPD)⁶⁾에서 충돌 법칙을 제시하는 방식과 『윤리학』에서 이 충돌 모델이 신체 변용 개념으로 변형되는 방식을 각각 고찰한다.⁷⁾ 이를 토대로 3절에서는 처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한다.

6) PPD의 자연학 부분 전체에 대해서는 거의 유일한 체계적 해설로 A Lecrivain 1977; 1978을 참조하라.

7) 생애 말미, 퀴르하우스가 던진 질문을 계기로 스피노자는 처음으로 데카르트 연장 개념에 대해 강력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다(편지 81, 1676년 5월 5일; 편지 83, 1676년 7월 15일). 이를 근거로 데카르트의 진술을 거의 그대로 따르는 PPD 출판(1663) 당시의 스피노자의 초기 입장과 나중의 입장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스피노자 자연학이 여하튼 기계론의 틀을 넘지 않는다고 보고, 본 논의에서 스피노자 자연학의 ‘진화’문제는 추상한다.

I. 변용 개념의 문제

올덴부르그를 매개로 보일에게 보내는 한 편지에서 스피노자는 유동체들이 그것들을 상호 응집시키는 외적 강제 없이 자유로이 운동하여 외적 충격에 아무 저항 없이 쉽게 물러서는 상태를 ‘평형’(*aequilibrium*)이라 부른다.⁸⁾ 그런데 이 단어는 『윤리학』에서, 그리고 인간학과 관련된 대목에서 두 번 다시 등장한다. 뷔르당의 당나귀처럼 두 동등한 외적 자극에 놓였을 때, “그런 평형에 놓인 인간은 [자유의지로 방향을 결정하는 대신] 허기와 갈증으로 죽을” 뿐이라고 단언하는 대목(E II, P49 Sc.)과, 인간이 남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좇아 이런 저런 것을 욕망하는 정서모방의 메커니즘(E III, P32 Sc.)⁹⁾이 그것이다. 물론 자유의지의 부재와 정서모방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지만, 이와 같은 ‘평형’은 극단에 가깝다.¹⁰⁾ 인간이 외적 충격에 이리 저리 휩쓸리긴 하지만, 외적 충격에 저항하고 그것을 얼마간 상쇄하는 내부성은 있기 마련이다. 『신학정치론』의 표현대로, 인간은 운의 불확실성 속에서 “아무 것이나 믿고, 의심에 빠질 때는 아주 작은 충격에도 [momento] 쉽게 이리 저리 떠밀리지만[*pellitur*]”,¹¹⁾ 운에 지배되면서도 그것을 지배하기 위해 미신에 빠지는 것이다. 자연적 필연성과 달리, 운이 불확실한 것으로 체험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러한 내면성을 전제하는지도 모른다. 보편적 결정론 하에서도 각자에게 고유한 방식으로 외적 충격을 굴절시키는 이런 메커니즘이 곧 ‘변용’이다.

8) “피막에 들어 있는 물의 입자들이, 그들이 자유로울 때와 달리, 피막의 벽면에 행사되는 손가락의 압력에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어떤 물체, 가령 우리 손가락이 사방에서 공기로 둘러싸일 때와 같은 평형[*aequilibrium*]이 없기 때문입니다.” (편지 6, G IV, p. 31).

9) “아이들의 신체는 계속적으로 일종의 평형 속에 있기[*veluti in aequilibrio est*]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남들이 웃거나 우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웃거나 울고, 남들이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곧장 모방하고자 욕망하며, 마지막으로 남들이 좋아한다고 상상하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욕망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10) 두 번째 사례는 특별히 “아이들의 신체”와 관련되며,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스피노자는 그 인간을 목매달아 자살하는 자, 아이들, 바보, 미치광이와 유사하게 취급한다.

11) 『신학정치론』 서문 (G III, p. 5). 특히 ‘*pellere*’는 스피노자가 PPD (II, P32, P33 Dem.)에서 고체를 둘러싼 유동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이다. Cf. Klever 1988, p. 190.

변용의 메커니즘은 흔히 외부 대상의 ‘표상’이라 불리는 ‘상상(imaginatio)’의 메커니즘에서 가장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인간 신체가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하는 방식으로 변용되면, 인간 정신은 신체가 이 물체의 실존 혹은 현전을 배제하는 [다른] 정서로 변용될 때까지, 동일한 외부 물체를 현행적으로 실존하는 것처럼, 혹은 자기 앞에 현전하는 것처럼 응시할 것이다.” (E II, P17) 여기에는 인간 신체에 대한 외부 물체의 작용, 인간 신체 자신의 변용, 마지막으로 외부 물체의 표상이라는 세 계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 세 계기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제시된 세 정리들을 참조해야 한다.

우선, (A) “인간 신체가 외부 물체들에 의해 변용되는 방식 각각에 대한 관념은 인간 신체의 본성과 동시에[*sumul*] 외부 물체의 본성을 함축할 수밖에 없다”(P16; 강조는 인용자). 이 정리는 그 앞에 제시되었던 자연학 소론(E II, P13 Sc. 뒤)의 한 공리¹²⁾로부터 도출된다. 그런데 이 정리로부터 스피노자는 ‘동시에’를 넘어 **비대칭적인 것**을 도출한다. (B) “이로부터 첫째, 인간 정신이 자기 신체의 본성과 더불어[*cum*] **아주 많은**[*plurimorum*] 물체들의 본성을 지각한다는 것이 도출된다.”(P16, Cor.1) (C) “둘째, 우리가 외부 물체들에 대해 가지는 관념들은 외부 물체들의 본성보다는 우리 신체의 상태를 **더 많이**[*magis*] 지시한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P16, Cor.2) 스피노자는 (A)로부터 곧바로 (B)와 (C)를 도출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다. 우선 (A)의 “동시에”와 (C)의 “더 많이” 사이에서이다. 어떻게 동등성을 함의하는 “동시에”로부터, 비대칭성을 함의하는 “더 많이”로 넘어갈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이는 우리 신체나 정신이 완벽한 평형 상태에서 외부 자극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주어진 성향이나 경사, 요컨대 어떤 **주관성**에 따라 그것을 굴절시켜 수용함을 뜻할 것이다. 그러나 『윤리학』이 표방하는 연역적 질서의 엄밀성을 감안할 때, 이런 해명은 충분치 않다. 물론 둘 사이에 있는 (B)는 이 간극의 근거를 보다 정확한 관점에서 제시해주는 듯 보인다. 각자가 가진 주관성이란 어떤 기체적 단일성에

12)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의해 변용되는 모든 방식들은 변용되는 물체의 본성과 동시에 그것을 변용시키는 물체의 본성으로부터 따라 나온다.” (두번째 Ax. 1)

토대를 두기보다, 신체가 항상 이미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나의 외적 작용에 늘 더 많은 것으로 반응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시 (A)의 단수(“외부 물체의 본성”)에서 어떻게 (B)의 복수(“아주 많은 물체들의 본성”)가 도출되느냐는 물음이 제기되며, 스피노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증명도 덧붙이고 있지 않다.

게루, 그리고 진태원은 (A)와 (C)의 간극의 문제에서 스피노자를 구제하기 위해 양자를 양적 차이가 아니라 관점 전환의 문제로 볼 것을 제안한다.¹³⁾ 정리 16까지는 스피노자가 자연학적 지평에서 사태 자체를 설명하지만, 정리 16 따름정리 2부터는 심리학적 지평(게루) 혹은 현상학적 지평(진태원)에서 사태를 설명하고 있고, 이 때문에 “더 많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타당한 면이 있다. 우선 ‘지시하다(*indicare*)’라는 용어는 스피노자에게서 대개 부적합한(*inadequate*) 인식을 가리키므로 외부 물체에 대한 상상이 우리 신체의 상태를 더 많이 **지시한다고** 해서, 그 관념이 반드시 우리 신체의 본성을 더 많이 **함축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점은 이러한 우리 신체 상태 자체에 대한 관념인 정서(*affectus*), 그 가운데서도 수동적 정서인 정념(*passio*)¹⁴⁾의 본성과 힘에 대한 정의에서 다시 확인된다. 변용은 우리 신체의 상태를 더 많이 지시하지만, “한 정념의 힘과 증가[*vis & incrementum*], 그리고 실존 안에서 그것의 유지[*eius in existendo perseverantia*]는 우리가 실존 안에서 우리 자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역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역량과 비교된 외적 원인의 역량에 의해** 정의된다”(E IV, P5; 강조는 인용자). 당연히 ‘정의되다’라는 단어는 ‘지시하다’는 단어와 달리, 사태에 대한 적합한(*adequate*) 표현이다. 그러므로 자연학적 지평 혹은 인과적 견지에서 보면, 수동적 변용은 우리 자신의 역량보다 외적 원인의 역량에 의해 더 많이(“우리 역량과 비교된”) **정의되며**, 단지 심리적

13) M. Gueroult 1974, p. 196; 진태원 2010 (“[‘동시에’와 ‘더 많이’ 사이의 간극은] 한편으로 **자연학적 관점에서** 파악된 변용 및 그 심리학적 결과에 대한 표현과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파악된 변용의 결과에 대한 차이로 이해하는 게 옳을 것이다. [...] **우리의 정신이** 외부 물체를 인식하는 길은 외부 물체가 변용시킨 결과인 **우리 신체의 상태, 곧 변용들을 통하는 길이 유일하다**는 점을 가리키는 것이다” p. 113; 강조는 원문).

14) 신체 변용(*affectio*) 중 신체 활동 역량의 증감 같은 상태 변화를 수반하는 변용이 정서(*affectus*)이며 (E II, D3), 정서 가운데서도 수동적인 정서가 정념(*passio*)이다.

지평 혹은 현상학적 지평에서만 우리 신체의 상태를 “더 많이” 지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역량과 비교된 외적 원인의 역량에 의해 정의되는 변용이 어떻게 우리 신체의 상태를 더 많이 지시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지시되는 우리 신체의 상태란 무엇인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특히 게루의 답변은 다시 물리적 현상과 심리적 현상의 구별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더 어려운 물음을 낳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정리가 상상을 설명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해석은 상상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 이상의 어떤 ‘과잉’을 포함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윤리학』에 따르면, 사유들의 질서와 연관은 사물들의 질서 및 연관과 동일하기에(E II, P7), 텍스트 상의 상충을 단순히 관점의 문제로 해결해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으며, 우선 그런 진술의 **자연학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 이에 나는 “동시에”(A)로부터 “아주 많은”(B)과 “더 많이”(C)가 도출되는 근거를 『윤리학』을 벗어나 PPD에 제시된 충돌 법칙에서, 특히 두 물체 사이의 충돌을 매개하는 유동체의 역할에서 찾을 것이다.

II. 충돌에서 변용으로

1. 데카르트 충돌 규칙의 난점

PPD가 『원리』를 기하학적 순서로 재배치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 일종의 ‘하이퍼텍스트’임을 고려하여, 우선 데카르트의 충돌 법칙과 거기에 제기된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자. 주지하듯, 데카르트 자연학의 핵심은 전통적으로 자연학과 수학의 변별 요소였던 운동을 수학에 포함시키면서 수학적 자연학을 전개한 점이다. 물론 데카르트는 운동의 본성을 제시하는 『원리』 2부 전반부에서 운동을 물체들 상호 간의 자리바꿈이라는 순전히 상대주의적 정의를 제시한다. 하지만 운동의 원인을 제시하는 후반부에서는 운동 자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자리매김하고,¹⁵⁾ 운동의 일반적 원인으로서의

신 외에 운동의 특수한 원인으로서 세 가지 기본적 자연법칙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 (뉴턴과 구별되는) 데카르트적 의미의 관성의 원리를 담은 것이 1, 2 법칙, 그리고 외적 충돌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원리를 담은 3법칙이 충돌 법칙이다. 이 법칙은 한 물체가 운동을 잃는다면 그것은 다른 물체에 반드시 그만큼의 운동량을 전달하여 한 계의 총운동량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으로, “물체들에 일어나는 변화의 특수한 원인들은 적어도 그것들이 물체인 한, 모두 이 3법칙에 담겨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충돌 법칙만을 대략적으로 제시했던 「세계」에서와 달리 『원리』에서 데카르트는 운동량을 mv 로 규정하고, 다양한 충돌 상황에 따른 물체들의 운동량 변화의 추이를 정식화하는데, 이것이 곧 7가지 충돌 규칙이다 (PP II, art. 46-52).¹⁶⁾

이처럼 충돌 법칙은 모든 변화를 외적 충격과 양적 변화의 견지에서 바라보는 기계론적 인과성의 표본이면서도, 과학사는 물론, 철학사의 견지에서라도 진지한 검토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미 당대 호이겐스에 의해 반박되었듯, 대부분의 규칙들이 경험에 위배되기 때문이다.¹⁷⁾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규칙 4이며,¹⁸⁾ 우리 역시 앞으로 이 규칙만을 다룰 것이다.

규칙 4에 따르면, 작은 물체 B가 정지 상태의 더 큰 물체 C와 부딪힐 때,

- 15) 이런 견지에서 데카르트에게도 “동역학(dynamique)”이 있다고 보고 그 의미와 난점을 제시한 논의로 Gueroult 1970을 참조하라.
- 16) 『원리』보다 10여 년 전에 집필된 「세계」(1633)에서 충돌 법칙은 운동량 보존과 더불어, 코나투스 바로 다음 두 번째 규칙으로, 그리고 충돌 규칙들 없이 제시된다 (7장). 이로 보아 충돌 법칙은 애초에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감속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듯하다. 또한 물체 상호간 운동 전달의 세세한 양상을 담은 충돌 규칙들이 「세계」에서는 제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리』의 프랑스어 판본에서 다시 수정과 보충을 거친다는 점은, 그것들이 『원리』 집필 즈음에야 본격적으로 탐구되었고, 그 역시 완성된 형태가 아님을 시사한다.
- 17) Koyré에 따르면, 이 때문에 데카르트 자연학에서 충돌규칙의 역할도 체계적으로 탐구되지 못했다(1966, p. 336). 그렇다고 해서 데카르트 충돌규칙의 오류가 반드시 데카르트의 반(反)경험적 이론주의에 기인한다고 할 순 없으며(데카르트는 일상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오히려 질량 개념의 결여처럼 이론 내적인 것이라 볼 수도 있다 (cf. Clarke 1977, p 66).
- 18) Cf. Clarke 1977, pp. 64-65; Costabel 1972, pp. 151-152. Costabel에 따르면, 특히 규칙 4는 “가장 많은 반박과 빈정거림”을 들었고, 순전한 “사변”에 지나지 않는다. 7가지 충돌 규칙 각각이 갖는 문제점으로는 Blackwell 1966을 참조하라.

B는 아무리 큰 속력으로 운동하더라도 C를 움직이지 못하고 자기 속력을 유지한 채 곧장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간다.¹⁹⁾ 이 규칙은 경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두 단단한 물체를 모델로 한 7가지 충돌 규칙 이후에 제시되는 유동체 속의 고체 운동에 대한 설명과도 배치되는 듯 보인다. 유동적 입자들은 고체보다 크기가 작으며, 또한 그것들이 고체에 동시에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규칙 4에 따르면 유동체 안에서 고체는 아예 운동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²⁰⁾ 더 결정적인 문제는 규칙 4가 데카르트가 표방한 운동의 상대성과도 배치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운동과 정지는 한 물체에 고유하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체와의 관계에 따라 정의된다.²¹⁾ 동일한 물체도 기준점에 따라 운동한다고도, 정지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운동의 정도 역시 상이하게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규칙 4의 상황에서, 기준점의 변화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규칙 4에서 기준점은 큰 물체 C이고, 작은 물체 B만이 운동한다고 가정되었다. 이제 기준점을 작은 물체 B로 바꿔, 큰 물체 C가 정지한 B쪽으로 운동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C는 B와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대신, B에 자기 속력을 일부 전달하면서 B를 자신이 운동하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 이 경우를 다룬 것이 바로 규칙 5이다. 어떻게 기준점의 변화에 따라 이처럼 판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 때문에 호이겐스는 상대주의적 관점에 충실하게, 규칙 4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명제를 제시한다. 곧 “아무리 큰 물체도 그 어떤 속

19) 메르센 신부에게 보낸 1639년 12월 25일자 편지(AT II, p. 627)와 1640년 10월 28일자 편지(AT III, pp. 210-211)에서 데카르트는 규칙 4와 상반된 진술을 한다. 즉 한 물체가 자기보다 두 배 더 큰 정지한 물체와 부딪히면 자기 운동의 2/3를 전달하여 애초 속력의 1/3로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다. Clarke는 이 진술과 『원리』의 진술 둘 다 규칙 4의 가능한 정식으로 간주하지만(1977, pp. 61-63), 『원리』가 더 나중에 출판되었을 뿐 아니라, 뒤에서 보겠지만 데카르트가 이후 규칙 4의 근거를 다시 명확히 제시하므로 『원리』의 진술을 결정적 정식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0) Cf. A. Lécirvain 1979, p. 193.

21) “고유한 의미의 운동은 자신과 접촉해 있으면서 정지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물체들과의 이웃함으로부터 다른 물체들과 이웃함으로의 이동이다.” (PP, II, art. 25) 몇몇 데카르트 주석가들은 운동의 상대성이 충돌 규칙을 비롯한 데카르트 자연학 전반에서 실제로 체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며, 단지 데카르트 자신이 지지하는 태양중심설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 보기도 한다(대표적으로 cf. Blackwell 1966, pp. 226-7, p. 233).

도를 가진 아무리 작은 물체와 충돌하더라도 움직여진다.”(정리 3)²²⁾

2. 스피노자의 PPD에 제시된 충돌 규칙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충돌 규칙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한 적이 없다. 올덴부르크가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을 물어왔을 때조차 그는 규칙 4를 포함하여 일곱 규칙 중 단 하나(규칙 6)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를 표한다.²³⁾ 그러나 뒤에서 보겠지만, PPD는 물체들의 단단함이라는 가정이나, 방향 변화에 필요한 힘의 문제 등 라이프니츠가 이의제기한 지점들에²⁴⁾ 대해 스피노자가 유사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그가 라이프니츠의 원초적인 능동적 힘 및 수동적 힘과 같은 형이상학적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어떻게 기계론의 틀 내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충돌 법칙을 비롯한 세 자연법칙이 제시되는 부분(PPD II, P12 이하)을 검토해보면,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데카르트가 제시한 세 자연법칙(PP II,

22) *De motu corporum ex percussione*, in Blackwell 1977, p. 578.

23) 편지 32, 1665년 11월 20일, (G IV, p. 174). 호이겐스의 *De motu*는 그가 죽은 지 8년 후인 1703년에 처음으로 출판되었으나, 1656년 이전에 집필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므로 스피노자는 PPD 출판(1663) 이전에 그것을 읽었으리라 생각된다.

24) 라이프니츠는 특히 연속성의 원리에 의거하여 데카르트 충돌규칙을 비판한다. 이 원리에 따라 첫째, 모든 급격한 변화, 특히 순간적 방향 변화는 배제되며 이는 방향 변화에도 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가령, 서로 다른 크기의 운동하는 두 물체 A, B가 충돌하여 더 작은 물체 A가 튕겨나가는 경우, A는 튕겨나가기 전에 운동 감소의 모든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동시에 내부 압력의 점진적 증가를 겪는다. A는 정지를 향해 가면서도 다시 속력을 회복하여 튕겨나가는 것이다. 이는 둘째, 모든 물체가 무한하게 많은 부분들의 합성체로서 탄력성을 지니고 있음을, 그리고 절대적 정지란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단단한(부분들의 상호정지) 물체를 모델로 하는 데카르트 충돌 규칙의 가정 역시 배제된다. Cf. “Specimen Dynamicum” (1695), part. II, in Leibniz 1969, pp. 444-450. 그 외 충돌 규칙을 비롯한 라이프니츠의 데카르트 자연학 비판의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A Brief Demonstration of a Notable Error of Descartes and Others concerning a Natural Law” (1686), in Leibniz 1969, pp. 296-302; “On the Nature of Body and the Laws of Motion” (1690?), in Leibniz 1989, pp. 245-250 ; “Critical Thoughts on the General Part of the Principles of Descartes,” (1692) in Leibniz 1969, pp. 383-412.

art. 33-63)이 정리들의 연쇄 속에 연속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이는 단지 형식적인 차이만은 아니다. 단순체와 복합체(1법칙과 관련), 그리고 직선 운동과 곡선 운동(2법칙), 마지막으로 고체와 유동체(3법칙) 사이에 데카르트가 설정해 둔 구별이 단지 추상 수준의 차이에 지나지 않음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특별히 충돌 규칙들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차이에 주목할 수 있다.

(1) 스피노자는 『원리』에는 없는 새로운 두 원리를 도입하고 이를 7가지 충돌 규칙들에 대한 증명의 토대로 삼는다. 하나는 충돌 규칙들 바로 앞에 삽입한 새로운 정리이다. “어떤 물체의 양태들이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때, 이 변화는 항상 최소한으로 일어난다.”(PPD II, P23) 다른 하나는 PPD 2부 서두에 제시된 공리이다. “서로 대립되는 양태를 가진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이 두 물체 모두가 적어도 어느 한쪽이 어떤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Ax.19).

(2) 충돌 규칙들이 적용되는 범위 역시 다르다. 데카르트는 충돌 규칙 정식화의 이상적 조건으로 절대적으로 단단한 두 물체만을 고려하며, 그것들을 둘러싼 유동체들은 단지 이 규칙들과 일상경험의 양립가능성을 해명하기 위해 언급하는 듯 보인다. 반면, 스피노자는 ‘고체’나 ‘유동체’에 대한 언급 없이 “다른 모든 물체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고려”된 물체들에서, “이 물체들의 부분들을 에워싸고 있는 물체에 대한 고려”로 넘어가면서 (PPD II, P31), 두 계기 간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1) 대결 모델에서 비자발적 적용 모델로

위에 언급된 두 원리를 각각 “운동양태 최소변이의 원리”, 그리고 “운동양태 간 상반성 제거의 원리”라 부르자. 이 두 원리는 스피노자의 『윤리학』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개체의 보존과 변화를 설명하는 두 주요 테제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한 자기 존재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한다”(E III, P6)는 코나투스 원리와 “한 기체 안에 두 상반된 작용이 촉발되면, 이 작용들이 더 이상 상반되지 않을 때까지 두 작용 모두나 둘 중 어느

하나에 필연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는 공리(E V, Ax. 1)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원리』와는 달리 스피노자가 PPD에서 이 두 원리를 앞세운 것은 그 자신의 철학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두 원리 모두 사실 데카르트가 이미 언급한 것이다.

물론 이 두 원리는 『원리』의 라틴어판본(1644)에는 암시조차 되지 않고, 라틴어판 출간 이후 데카르트가 클레르슬리에(Claude Clerslier)에게 보내는 편지(1645년 2월 17일)에서만 제시된다. 특히 규칙 4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클레르슬리에의 호소에 데카르트가 제시한 답변이 이 두 원리이다.

양립할 수 없는 양태들을 가진 두 물체가 충돌하면, 이 양립불가능한 양태들을 양립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이 양태들에는 어떤 변화가 정말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늘 가능한 한 최소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양태들의 양이 얼마간 변화하여 두 물체가 양립할 수 있게 된다면, 더 큰 양의 변화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AT IV, p. 185)

즉 크기가 $B < C$ 이며 물체 B가 움직여 절대적 정지 상태의 C와 부딪힌다면, B는 C를 움직여서 자기 운동의 절반 이상을 상실하는 대신 자기 운동의 방향만 바꾸고 자기 운동은 그대로 보존한다.

물론 이 두 원리는 이후 피코 신부에 의해 번역되고 데카르트의 검토를 거친 『원리』의 프랑스어 판본(1647)에서는 명시적으로 제시되진 않는다. 하지만 라틴어본에 비해 프랑스어본이 대폭 수정된 것은 오직 충돌 규칙들과 관련해서이며, 그 가운데서도 규칙 4에 라틴어본보다 거의 4배 긴 해설이 추가되고, 이것이 암묵적으로 최소변이의 원리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몇 가지 규칙들에 대한 보충 역시 이 공리를 토대로 한다는 사실은, 스피노자가 이를 충돌 규칙 전체를 연역하는 원리로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규칙들에 대한 모든 증명의 전제로 활용한 것이 데카르트의 정신에 보다 충실한 해석임을 밝혀준다. 그렇다면 편지 이후에 출판된 『원리』의 프랑스어 판본에서 데카르트가 이 두 원리를 명시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① 우선, 최소변이 원리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석가들은 이 원

리가 목적론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 짐작한다.²⁵⁾ 그런데 이 원리에 대한 스피노자의 제시 방법은 그것이 어떻게 데카르트의 기계론과 일관될 수 있는지 해명해준다. 그는 최소변이 원리를 제 1법칙인 **코나투스 원리를 통해 증명함**으로써,²⁶⁾ 그것이 코나투스 원리의 한 귀결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즉 데카르트가 강조하듯 코나투스 원리가 ‘노력하다(*conari*)’라는 말의 일상 의미와 달리 비목적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면(PP III, art. 56), 최소변이 원리도 목적론일 수 없다. 그런데 이 점은 스피노자가 코나투스 원리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데카르트와 달리 그 적용 범위를 단순체에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제 1법칙의 증명에서 스피노자는 “단순하고 분할불가능한 한에서”라는 조건을 “어떤 사물을 그 외적 원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그 자체로 고찰한다면”(PPD II, P14, Dem.)으로, 곧 사물의 단순성이라는 조건을 사태 고찰의 준거점의 문제로 대체한다. 그 결과, 내적 구성이 복합적인 물체도 단순체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로써 데카르트의 제 1법칙은 복합체에도 적용되는 보편성을 얻는다. 물론 이런 진술은 데카르트의 불분명한 입장에 대한 보다 명확한 표현이기도 하다. 데카르트에게서 ‘단순 본성’이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인식에 상대적인 단순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²⁷⁾ 다만 최소변이 원리가 한 복합체를 이루는 **부분들의 상호 조정** 원리로 확장됨을 감안하면, 위의 진술은 부분들의 상호정치처럼 정태적 통일성을 개체성의 범형으로 삼는 데카르트 자연학의 틀과 정확히 부합하진 않는다.

② 운동 양태들의 상반성 제거 원리에 대한 취급 방식은 이런 차이를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 데카르트는 이 원리를 최소변이 원리보다 더 사소하게 취급하며, 이 점에서 이 원리가 최소변이 원리에 비해 데카르트 주석가들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반면 스피노자는 상반성 제거의 원리를 최소변이 원리보다 **상위에** 있는 하나의 **공리**로 제시한다. 이는 최소변이, 곧 한 물체의 부분들 간의 상호 조정이 외적 강제에 의해 이루어

25) Cf. Gabbey 1980, p. 265; Garber 1992, p. 253.

26) “이 정리는 2부 정리 14로부터 충분히 명석하게 따라 나온다.” (PPD II, P23, Dem.)

27) Cf.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 규칙 6과 12; Marion 2006.

짐을 의미하며, 데카르트에게서 간과되는 것은 이 비자발적 변화가 갖는 존재론적 의미이다.

1/ 우선 상반성의 제거 원리는 뉴턴 이전까지 물체 충돌에 대한 인식을 지배하던 “대결 모델”²⁸⁾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결 모델에서 힘은 운동하는 각 물체가 가진 것, 그리하여 마주침을 통해 더 얻거나 잃는 것으로 사고된다.²⁹⁾ 반면 여기서 힘은 두 물체의 충돌에서 생겨나 두 물체 모두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사고된다.

먼저, 충돌하는 두 물체의 힘이 동등한 경우(규칙 1과 규칙 6)를 생각해 보자.³⁰⁾ 이는 승자나 패자가 없는 이룰테면 무승부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두 물체 모두 변화를 겪는다. 힘의 우위가 명백한 상황도 마찬가지다. 가령 규칙 4에서, 정지한 더 큰 물체 C는 충돌해오는 더 작은 물체 B의 운동력을 받아 정지력이 더 증가되며, B는 속력을 유지하면서 방향을 바꾼다. 규칙 5의 경우, 운동하는 더 큰 물체 B는 정지한 더 작은 물체 C를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자기 속력의 일부를 전달함으로써 속력을 잃게 되고, C는 운동을 얻는다. 결국 어떤 경우든 더 작은 물체 뿐 아니라 더 큰 물체 역시 애초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는 “어떤 사물의 변화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큰 힘에서 비롯된다”는 공리(PPD II, Ax. 20)와 상충하지 않는가? 상반성 제거의 원리는 이 점을 해명해준다. 즉 운동 양태의 대립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은 운동 자체의 공통성이며, 이 공통성을 바탕으로 두 물체는 운동 양태의 대립을 제거하면서 함께 힘을 형성한다.³¹⁾ 이제 충돌을 지

28) 이는 A. Gabbey (1980)의 표현(“contest view”)이다. 뉴턴 이전의 대결 모델과 뉴턴의 혁신에 대해서는 특히 pp. 243-244를, 데카르트 충돌 규칙에 나타나는 대결 모델에 대해서는 Garber 1992, pp. 231-254를 참조하라.

29) 이 점은 라이프니츠 역시 공유하는 한계이다.

30) 이 상황은 『원리』의 제 3법칙(II, art. 40)의 진술 자체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그 뒤에 삽입되는 7가지 충돌 규칙들(art. 46-52)에서만 고려된다.

31) i) 하나의 운동은 다른 운동과 대립되지 않는다. ii) 대립은 오로지 운동과 정지나 (빠름이 운동의 본성과 연관되고 느림이 정지의 본성과 연관되는 한에서) 빠름과 느림 사이에, 혹은 운동의 상이한 방향 사이에, 요컨대 운동의 양태들 사이에서 성립한다. iii) 그러므로, 이 절 서두에 언급된 공리 19에 따라, 충돌하는 두 물체는 각각이 지닌 운동량의 크기가 무엇이든, 상반성이 사라질 때까지, 단 가능한 최소한으로 상태를 바꾼다. 운동의 공통성이 두 물체에만 해당되는지, 모든 물체에 해당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여

배하는 것은 각각 독립된 힘을 지닌 두 물체 간의 “대결 모델”이 아니라 동일한 운동에 참여하는 두 물체 사이의 비자발적 “적용 모델”이다.

2/ 그러므로 상반성의 제거 원리는 충돌 후 각 물체에 일어나는 변화를 넘어, **충돌로 생겨나는 새로운 개체** 형성의 원리로 확장된다. 물체의 통일성이 그 부분들의 상호정지에 있다는 데카르트적 정식을 따를 때, 물체 B와 C가 방향과 속력 모두에서 일치한다면 두 물체는 동일한 물체를 형성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두 물체가 방향이나 속력에서 덜 상반된다면, 그리고 빠름과 느림에서처럼 상반성에는 다양한 정도가 있을 수 있는 이상, 상반성이 감소하는 만큼 두 물체의 상호무관성 역시 감소한다고, 따라서 두 물체의 통일성은 다양한 정도로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스피노자의 개체화 이론이 가장 상세하게 드러나 있는 편지 32 (이는 데카르트 충돌 법칙에 대한 스피노자의 입장이 제시된 유일한 텍스트이기도 하다)는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 물체들의 응집 원리에 대한 올덴부르크의 질문에 스피노자는 운동하는 물체들 간의 상반성의 제거라는 **소극적 기준**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이 기준을 사유에 그대로 적용한다. 물체는 정신이든 한 개체의 통일성은 여러 개체들이 **충돌하여 서로 상반성을 제거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소극적 기준은 『윤리학』에서 보다 역동적인 것으로 대체된다. 우선 여러 개체가 부딪혀/합작하여 (“*concurrere*”) 서로 함께 어떤 결과를 산출한다는 사실 자체로써 그것들은 “하나의 독특한 사물”로 정의된다(E II, D 7). 이는 다시 자연학 소론(E II, P13 Sc. 뒤)에서 **서로에 대해 운동하는** 부분들 간에 교환되는 운동과 정지의 비율로 구체화된다(같은 곳, Lem. 7). 이제 물체 통일의 범형은 **상호 운동**이 되며, 상호 정지는 상호 운동의 극한에 불과해진다. 그럼에도 상반성 제거라는 기준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물체의 통일성이 최소치, 그러니까 상반성을 제거하는 상호작용에서 시작하여 무한하게 다양한 정도들을 포함하며,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동일 물체

기서 말하는 운동의 공통성은 『윤리학』에서 ‘공통 통념(*notiones communes*)’으로 개념화(E II, P37, P39)되는 듯하며, 만일 그렇다면, 공통성의 범위는 두 물체에 한정될 수도 있고(P39) 모든 물체로 확장될 수도 있다(P37).

에 속한 여러 개체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상반성을 얼마간 제거해가긴 하지만, 또한 바로 이 때문에, 전적으로 합치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 점은 운동의 상대성이 단지 인식론적 준거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체가 참여하는 **상호작용의 다양성**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알려준다.

결국 운동을 라이프니츠와 달리 추상적이 아닌 **실제적인** 것으로 보면서도, 운동의 **상대성**과 일관된 견지에서 개체를 사고하기 위해서는 부분들의 상호 정지로 정의되는 고체 대신, 서로 간에 끊임없이 운동하는 물체들, 곧 **유동체들 간의 관계**를 준거로 삼아야 한다. PPD의 편집자 루이 메이어가, PPD의 텍스트에 밝히지 않은 『원리』에 대한 스피노자 자신의 이견으로서, 자유의지의 문제와 더불어 “유동체의 본성과 특성들”을 언급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2) 주변 물체들에 의한 외적 충격의 매개

그러나 유동체의 특성에 관한 스피노자의 이견은 자유의지 테제에 대해서만큼 근본적이진 않은 것 같다. 물론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와 달리 단단함이나 유동성 같은 질적 속성을 배제하고 운동 관계만을 표현한다. 그 결과 단단한 물체 간의 충돌을 다루는 부분(PP II, art. 45-52)과 유동체 속에서의 충돌을 다루는 부분(art. 53-63) 사이의 연속성도 분명해진다. 그러나 데카르트 역시 질적 표현들이 단지 편의적인 것에 불과하며, 주변 물체들과 분리된 단단한 물체라는 가정 역시 이론적 추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art. 53).³²⁾ 물론 유동체에 대한 데카르트의 고려는 충돌 규칙의 확장이라기보다는 다만 절대적으로 단단한 물체들을 모델로 정식화된 충돌 규칙이 일상적 경험과 양립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뿐이라는 인상을 준다.³³⁾ 그

32) 더욱이 프랑스어판 『원리』에서 규칙 4를 제시할 때 그는 특별히 이 규칙이 유동체를 추상한 조건임을 장황하게 강조하고 있다. “만일 물체 C가 B보다 조금 크고 완전히 정지해 있을 때, 다시 말해 걸로 드러나는 운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래에서 논하겠지만) 단단한 물체들을 둘러싸서 그것들을 더 쉽게 운동하게 만드는 공기나 다른 유동체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지 않다면 [...]”(AT XI, p. 90).

33) “각각의 물체들은 많은 물체들과 동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위의 법칙들[충돌규칙]을 적용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PP II, art. 53). 라이프니츠 역시 유동체 속의 고체에 대

러나 중요한 것은 규칙 4에서 제기된 운동의 상대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적어도 논리적 차원의 해결책**이 『원리』의 유동체 논의에서 제시된다는 점이다. 실상, 데카르트가 규칙 4와 5 사이, 그리고 규칙 4와 유동체가 도입되는 후반부 논의 사이의 명백한 논리적 모순을 간과했으리라 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 모순은 흔히들 고체를 모델로 정식화된 충돌 규칙을 이후의 유동체에 대한 논의와 별도로 고찰하는 데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1/ 우선, 유동체 속의 단단한 물체 B가 정지해 있다고 해보자. B의 정지 상태는 그것에 튕겨나가면서 서로 충돌하는 유동체들 상호 간의 평형에 기인한다. 그리고 규칙 4에 따르면, B가 운동에 저항하면서 정지 상태로 머물도록 하는 힘은 각 유동체가 B에 부딪히는 힘만큼 더 커진다. 따라서 정지 상태의 B를 유지시키는 힘의 대부분은 이 유동체들로부터 온다고 할 수 있다. 즉 B는 그것을 미는 유동체들의 운동에도 **불구하고** 정지 상태에 머무르지만, 유동체들의 이 운동은 정지해 있는 B의 힘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합쳐져 이 힘을 **증가시킨다**.

2/ 이제 다른 데서 어떤 힘이 가해진다고 해보자(PP II, art. 57). 그리고 이 힘이 B의 정지력보다 작다고 해보자. 규칙 4에 따라 이 힘은 결코 B를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이다. 이 힘은 B를 움직인다. 그것이 유동체들 사이에 이루어진 평형을 깨고 이 유동체들의 힘과 조합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방이 유동체로 둘러싸인 고체는 “아주 작은 힘만으로도 이리 저리 밀릴 수 있으며,” 이 사실에 “규칙 4도 위배되지 않는다”(art. 61).

만일 다른 곳에서 오는 어떤 힘 [*aliqua vis*]에 의해 B가 C쪽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한다면, 그 힘은 (그것이 아무리 작다해도) 혼자서 B를 움직이는데는 충분치 않지만 유동체 FD의 작은 부분들과 결합하여 [*concurrere*] 이것들로 하여금 B를 C 쪽으로 밀도록 하고 또 B에게 자신의 운동 중 일부를 전달하기에는 충분한 것이다.

즉 B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런 상태를 낳는 힘은 외부의 힘 자체만도

한 데카르트의 논의가 단지 현상과의 모순으로부터 규칙 4를 구제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본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Leibniz 1969, p. 408을 참조하라.

아니며, B 자신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대부분 [*maxima ex parte*]” 주변 물체들로부터 오는 것이다. B의 정지력을 구성하던 것이 이제 B의 운동력으로 변환되고, 따라서 규칙 4의 상황에서 규칙 5의 상황으로 넘어가는 셈이다. 단, 이는 규칙 5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B는 자신에게 가해진 외부의 힘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art. 60), 외부의 힘은 B의 주변 물체들의 운동력과 결합하지 않고서는 결코 B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art. 59).

3/ 그러므로 유동체가 외적 힘에 의해 “모두 함께[*totum simul*]” 어딘가로 이동할 때, “그 유동체 속에 있는 단단한 물체가 그 유동체와 함께 이동한다는 것은 필연적이다”(같은 곳). 그런데 한 물체의 통일성은 부분들 간의 상호정지나 동시적 이동에 있다. 하기에 B는 유동체들과 더불어 하나의 개체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부분들 간의 상호정지나 동시적 이동이라는 개체성에 대한 정태적 정의가 실은 부분들 간의 무수한 상호운동을 포함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제 우리는 규칙 4와 관련하여 스피노자가 왜 호이겐스가 아니라 데카르트를 지지했는지 납득하게 된다. 최소면이 원리와 상반성 제거 원리를 명시함으로써 규칙 4의 내적 정합성이 마련되었다면, 이제 유동체에 대한 고려는 규칙 4가 운동의 상대성이나 일상적 경험에 위배되지 않음을 증명해 준다. 여기서도 그가 가한 수정은 데카르트에게서 다소 애매하게 남아있는 표현들에 대한 교정에 불과하다. 첫째, 그는 “다른 데서 오는 어떤 힘 [*aliqua vis, aliunde adveniente*]”이나 “어떤 새로운 힘 [*nova aliqua vis*]”을 “외적 충격[*externus impulsus*]” (혹은 “외부 물체”)과 “외적 힘”으로 구별하여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대체한다(PPD II, P35).³⁴⁾ B에 작용하는 힘은 외부 물체가 가하는 힘 자체가 아니라 이미 주변물체와 결합된 힘이

34) 그리고 “외적 힘”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맥락에서만 사용한다. 정리 35: “[...] 물체 B가 이렇게 외적 충격에 의해[*ab externo impulsu* : 여기서 불어판 번역자인 아행(C. Appuhn)은 이를 ‘force extérieure’로 번역하면서 중요한 차이를 놓치고 있다(Spinoza 1966, p. 323)]에 의해 움직여지며, 자기 운동의 대부분을[*maximam partem*] 그것을 둘러싼 물체들로부터 받지 외부 힘으로부터[*vi externo*] 받는 것이 아니다.” 증명: “그의 운동의 주요 부분을[*praecipuam partem*] 외부 힘으로부터 받는 건 아니다.” (G. I, p. 221-222)

때문이다. 둘째, 데카르트가 B의 운동력 가운데 주변 물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또한 부분적으로는 [*partim etiam*]” (art. 59의 진술), “대부분 [*maixam ex parte*]”과 같이 다소 애매하게 기술한다면, 스피노자는 “대부분”, “주요하게”라는 표현을 통해 주변 물체들의 인과적 비중을 선명하게 강조한다. 셋째, 그는 충돌 규칙들에 대한 증명의 근거로 사용했던 구별, 곧 운동 자체와 이 운동의 양태 혹은 규정(속력과 방향) 사이의 구별을, 다시 한 물체와 그 주변 물체들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한다. 즉 외적 충격은 B의 **상태 변화(곧 규정)의 원인**에 불과하며, 주변 물체들이야말로 B의 **운동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³⁵⁾

하지만 데카르트는 여기서 한 물체의 **개체성**을 부분들 간의 운동을 통해 정의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입자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접착제’인 ‘상호 정지’를 대신하는 것은 기껏해야 해당 물체들이 “더 멀어지지 않는다”는 소극적 규정에 불과하다(art. 62).³⁶⁾ 그런데 스피노자 역시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으며, 다만 유동체 속에 있는 물체, 가령 공기 중에 있는 우리 손이 왜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이유만을 제시한다. 즉 손이 공기를 휘저을 때 공기 입자들 사이에 생겨나는 차이는 곧바로 상쇄되어 입자들이 손과 동일한 속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유동체들이 하나로 응집되기 위해서는 (가령 물을 담는 피막과 같이) “그것들을 둘러싸는 물체들에 의해 억제되어야[*cohibetur*]”³⁷⁾ 하는데, 여기서는 그 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결여된 요소는 『윤리학』에서 발견된다.

35) “동등한 운동으로 서로를 향해 운동하는 [A 주변의] 물체들은 [...] 규정[즉, 방향]에 의해서만 대립하지 운동에 의해서는 대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서로 저항하면서 자신들의 규정만을 상실하지 운동을 상실하진 않는다. 이 때문에 물체 A는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물체들로부터 어떤 규정도, 따라서 (속력이 운동과 구별되는 한) 어떤 속력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운동을 받아들이며, 추가적 힘이 가해질 때 이 물체들에 의해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PPD II, P35, note)

36) 혹은 “운동의 참되고 절대적인 본성은 자신과 인접한 다른 물체들과 이웃함으로부터의 이전”이므로, 단단한 물체가 유동체에 의해 이끌려 가더라도 “고유한 의미로서의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art. 62).

37) 편지 6, 스피노자가 올덴부르크에게 (G IV, p. 31).

3. 『윤리학』에서 물체들의 충돌: “무른 부분”의 도입과 내면성의 형성

PPD에서 충돌 법칙은, 우선 두 물체와의 관계에서, 그 다음엔 한 물체와 그 주변의 유동체, 그리고 외부 물체와의 관계에서 다뤄졌다. 『윤리학』의 변용 메커니즘에서 이 관계들은 **인간 신체리는 복합체의 내부에서** 다양한 부분들이 벌이는 일련의 상호작용으로 통합된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는 단단한 부분과 유동적 부분 외에, 새로운 부류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곧 무른 부분이다.³⁸⁾ 무른 부분이 수행하는 역할이 가장 상세하게 제시된 『윤리학』 2부 정리 17과 그 따름정리를 살펴보자.

정리 17은 상상이 연역되는 정리 16에 이어, 기억이 연역되는 정리이다. 정리 17의 진술 자체에 따르면, 부재하는 것에 대한 현재적 응시(즉 상상)로서의 기억은 단 한 번의 충격으로 족하다. “인간 정신은, 인간 신체를 **한 번[semel]** 변용시켰던 외부 물체들이 실존하지 않거나 눈앞에 있지 않더라도, 마치 그 물체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양 그 물체들을 응시한다.” (강조는 인용자) 그런데 정리 17의 따름정리의 증명에 따르면, 기억은 동일한 변용의 습관적 반복에서 생겨난다. “외부 물체들이 인간 신체의 유동적 부분들로 하여금 가장 무른 부분들을 **자주[saepe]** 때리도록 규정하는 동안 [...] 정신은 외부 물체를 현전하는 것처럼 응시할 것이다.” (강조는 인용자) 이런 상층은 이미지들의 연쇄가 이루어지는 기체에 대한 설명에서 다시 나타난다. 가령, 이미지들의 연쇄는 습관을 통해 형성되지만(E II, P18 Sc.), 이런

38) 스피노자는 인간 신체의 단단한 부분, 무른 부분, 그리고 유동적 부분이 가리키는 바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물론 그것들 각각을 뼈, 뇌, 그리고 동물정기에 대응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데카르트나 흄스의 자연학 및 인간학에서 구체적 신체기관(가령 뇌나 심장, 동물정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스피노자가 신체 기관을 하등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 보인다. 실제로 스피노자는 신체기관을 언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PPD와 편지 6에서 ‘단단함’이나 ‘유동성’과 같은 질적 용어들의 부적합성을 비판한 바 있으며, 『윤리학』에서도 위의 세 부류는 단지 ‘요청’에서 언급될 뿐이다(E II, P13 Sc. 이후 자연학 소론의 Post. 2). 실제로 이 세 부류는 단지 운동 양태들에 의해서만 차이가 날 뿐이다. 그렇다면 “운동과 정지의 비율”과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부분들 역시 미래의 연구를 통해 채워나가야 할 ‘자리표시자(placeholder)’로서 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연구의 사례로, 무른 부분의 역할을 중심으로 스피노자의 상상 이론을 기호학적으로 해석한 L. Vinciguerra 2005를 들 수 있다.

연쇄를 깨트리는 데는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족하다(E II, P44, Sc.).

‘한번’과 ‘자주’ 사이의 간극을 해명해주는 것이 바로 무른 부분과 유동적 부분의 상호작용이다. 정리 17 따름정리의 증명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외부 물체들이 인간 신체의 유동적 부분들로 하여금 가장 무른 부분들을 자주[*saepe*] 때리도록 규정하는 동안[*dum... ita determinant, ut*], 외부 물체들은 이 무른 부분들의 표면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여 유동적 부분들은 그 이전에 습관적으로 그래왔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사되며, 이후에도 역시 그들의 자생적 운동으로 이 새로운 표면과 접촉하면서, 그것들이 외부 물체들에 의해 이 표면 쪽으로 떠밀렸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반사된다. 그 결과 인간 신체는, 이렇게 반사된 유동적 부분들이 계속해서 운동하는 동안, 그것들에 의해 동일한 방식으로 변용되며, 정신은 또 다시 [...] 외부 물체를 현전하는 것처럼 응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인간 신체의 유동적 부분들이 그들의 자생적 운동으로 동일한 표면들과 접촉할 때마다 그럴 것이다.

먼저, “자주”라는 말은 우리 신체와 외부 물체 사이가 아니라, 신체 내의 유동적 부분과 무른 부분들 사이의 접촉과 관련되는 부사다. 다음으로, 외부 물체들은 이 접촉이 **자주 반복되도록 규정**할 뿐이며, 이는 단 **한 번의 충격**으로 충분할 수 있다. 결국 외적 충격의 효과는 무른 부분들에 대한 유동적 부분들의 자생적인 내부 충동을 매개로 해서만 산출된다. 그 대신 외부 충격은 외부 물체들이 신체 부분들의 운동을 규정하는 동안을 넘어서까지, 곧 “이렇게 반사된 유동적 부분들이 계속해서 운동하는 동안”, 또 “그들의 자생적 운동으로 동일한 표면들과 접촉할 때마다” 지속될 수 있다.

외적 충격에서 내부 충동로 이어지는 이 과정 전체를 스피노자는 “규정(*determinatio*)”이라 부르되, 특별히 내적 부분들의 자생적 운동을 두고 “변용(*affectio*)”이라 부른다. PPD의 충동 법칙에 비추어 보면, “규정”은 유동체로 둘러싸인 물체에 가해진 외적 충격을 지칭했던 바로 그 단어이다. 반면, 유동체와 하나를 이룬 물체의 운동이 새로이 “변용”으로 칭해지고 있다. “변용”이야말로 『윤리학』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개념이며, 이 변용 메커니즘의 핵심에는 무른 부분이 있다. 무른 부분들은 유동체들처럼 상호 운동하면서도, 단단한 물체의 부분들처럼 얼마간 상호 정지해 있다는 이중성

을 띤다. 따라서 무른 부분들은 규칙 4의 정지한 물체와는 달리 그것들을 때리는 유동적 부분들의 운동에 의해 움직일 수 있고 또 이 운동을 얼마간 간직할 수 있다. 가령 외부 물체가 우리 신체에 어떤 작용을 가한다고 해보자. 무른 부분들의 표면의 모습은 유동적 부분들의 특정한 반사 각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외적 충격은 이미 굴절된 형태로 유동적 부분들의 운동과 결합된다. 그러나 이렇게 결합된 운동은 다시 무른 부분들의 표면의 모습을 얼마간 변화시켜 신체 내부에 간직된다. 무른 부분들에 ‘한번’ 일어난 변화에 힘입어 외적 충격은 외부 물체의 작용 없이도 ‘자주’ 재생될 수 있는 것이다. 각자에게 고유한 체험된 **역사**, 곧 내면성은 여기서 생겨난다.

Ⅲ. 신체 변용에서 다양한 물체들의 인과적 비중

이제 처음 제기했던 문제로 되돌아가보자. 우선, 신체 변용의 관념이 우리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을 “동시에” 함축한다는 것(E II, P16)은 충돌의 결과가 두 물체 모두의 운동 양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충돌은 두 물체가 관계 맺고 있는 수많은 유동체들에 의해 매개되므로, 정신이 자기 신체 변용을 통해 외부 물체를 지각할 때 그것은 또한 “아주 많은 물체들의 본성”을 지각한다(P16 Cor.1). 마지막으로, 정신은 자기 신체에 대한 외부 물체의 작용 때문에 이 물체를 지각하지만, 자기 신체에 가해지는 힘의 대부분은 외적 충격 자체가 아니라 신체 내의 유동적 부분들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우리 신체 변용의 관념은 우리 신체의 상태를 “더 많이” 지시한다(P16 Cor.2). 즉 우리 신체 변용은 외부 충격에 의해 규정되지만, 그 근접인은 이렇게 규정된 유동적 부분들의 운동이다. 결론적으로, 변용에서 유동적 부분들의 인과적 비중(이는 외부 충격 자체보다 더 크다), 그리고 유동적 부분들의 운동 양태를 얼마간 안정화하는 무른 부분의 존재(그것은 유동체들의 반사 각도를 굴절시키고 또 그것들의 충돌 방식에 대한 흔적을 보유한다), 바로 이 두 가지 요소를 근거로 변용이 외부 물체의 본성보다 우리 신체의 상태를 더 많이 지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한양태’인 개체가 자기 실존의 원인이요, 따라서 “자기 원인”이라는 비스피노자적 결론에 도달하는 셈이 아닌가? 이는 결국 모든 변용이 자가-변용이며 외부 충격은 단지 그 계기(occasion)에 불과하다는 라이프니츠적 결론과 흡사하지 않은가? 이런 결론은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합당하지 않다.

우선, 신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유동적 본성 때문이다. 유동적인 부분들의 운동은 엄밀히 말해 우리 신체로부터 비롯되지는 않는다. 유동적 부분들의 운동은 우리 신체와 외부 물체 사이에서 둘의 상호작용을 매개한다. 그러므로 유동적 부분들을 우리에게 속하는 **우리 신체의 부분들**로만 바라보기보다, PPD의 표현대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물체들**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인간 신체의 합성 부분들은 특정 비율에 따라 그들의 운동을 서로 교환하는 한에서가 아니라면, 신체 자신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E II, P24). 다른 한편, 이 유동성은 무른 부분에도 해당된다. 무른 부분들은 유동적 부분들보다 안정성을 띠지만, 단단한 물체처럼 부분들의 상호 정지가 아니라 유동적 부분들처럼 상호 운동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결국 무른 부분과 유동적 부분의 안정성의 차이는 정도상의 차이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위의 사실은 “지시(*indicare*)”되는 것의 인과적 부적합성(*inadequacy*)을 해명해준다. 우리 신체 부분들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신체와 무관하다기보다 어떤 외부성을 띠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외적 충격 하에 형성된 유동체들의 특정한 흐름, 곧 우리 신체의 특정한 변용은 우리 신체의 변용이면서도 마치 외부 물체의 대리자처럼 우리 본성에 대립되게 작용할 수 있다. 가령 슬픔의 정서(*affectus*)가 그렇다. 그런데 상상에 의해 지시되는 우리 신체의 **상태**는 우리 신체의 본성만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 신체의 본성에 **상반되는 변용까지 포함한** 변용들 전체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문에 1절에 인용된 정념의 강도와 관련된 정리(E V, P5)에서 스피노자는 ‘역량(*potentia*)’이라는 단어와 구별하여 ‘힘(*vis*)’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역량이, 독립적으로 고려된 우리 신체와 외부 물체 **각각**에 관련된다면, 힘은 이 둘이 마주쳐 그들의 **합작**으로 우리 안에 생겨나는 변화와 관련된다. 그리고 우리가 수동적 상태에 있을

때, 이 관계에서 인과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 신체 본성과 상반되는 변용이다. 바로 이 때문에 정념의 힘은 우리 신체의 역량이나 외부 물체의 역량이 아니라 **우리 신체의 역량과 비교된 외부 물체의 역량**에 의해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윤리학』의 코나투스 원리에 따라(E III, P4-6), 그리고 PPD의 충돌 규칙에서 본 상반성 제거의 원리에 따라, 우리 신체 본성에 상반되는 변용과, 우리 신체 본성에 합치하는 변용은 서로 간의 상반성을 제거하는 경향을 떨 수밖에 없다. 단, 그 결과는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 “한 기체 안에 두 상반된 작용이 촉발되면, 이 작용들이 더 이상 상반되지 않을 때까지 두 작용 모두나 둘 중 어느 하나에 필연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E V, Ax.1)이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더 가까이나 더 멀리 있는 주변 물체들과의 관계이다.

결론

오직 외적 충격에 의한 변화와 이 변화의 가지성을 핵심으로 하는 데카르트 자연학에 남은 핵심 문제는 단순체의 순간 운동을 넘어 복합체의 지속을 설명하는 내면성의 원리이다. 나는 스피노자가 라이프니츠의 원초적인 능동적/수동적 힘과 같은 형이상학적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어떻게 기계론의 틀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스피노자의 초기 저작인 『데카르트의 철학 원리』에서 제시된 데카르트 물체의 충돌 법칙에 대한 그의 재정식화가 『윤리학』의 변용 개념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추적했다. 그 결과 인간 신체가 단단한 부분, 무른 부분, 유동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 물체들에 의해 아주 많은 방식으로 변용될 수 있다는 지극히 단순한 두 사실로부터, 기계론적인 외적 규정의 질서 안에서 외적 충격을 굴절시키는 개체의 내부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럼에도 왜 개체는 여전히 외적 규정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는지가 드러났다. 스피노자 철학이 실체의 철학 아래 감추어진 개체화의 철학이라 할 수 있다면, 이런 의미에서 개체 산출의 원인이자 결과인 “변용”은 스피노자

철학의 중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변용 개념의 전체 면모와 그 인간학적 함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변용 가운데서도 신체 전체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신체 활동 역량의 증감)를 가져오는 변용, 즉 “정서”(affectus)의 범칙을 더 상세하게 다뤄야 할 텐데, 이는 후속 작업으로 남겨둔다.

끝으로 본 논의는 자연학에서만은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대립이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거나 적어도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미묘함을 보여주었다. 다른 한편, 코나투스를 개인의 원초적 능동성의 토대로, 다른 개체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변용(따라서 상상과 정념)을 이 능동성의 제한으로 보는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지배적 해석이 실은 라이프니츠 관점에 더 가까움도 알 수 있다. 라이프니츠에게서 외적 충격이 개체적 실체의 자가-변용의 계기이자 제한에 불과하다면, 스피노자에게서는 외적 충격과 그에 따른 변용 없이는 내면성도 없다.

투 고 일: 2013. 07. 22.
심사완료일: 2013. 08. 09.
계재확정일: 2013. 08. 10.

김은주
서울대 강사

참고문헌

1. 스피노자 원전

SPINOZA, Baruch (1925). *Spinoza Opera*, im Auftrag der Heidelberg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herausgegeben von Carl Gebhardt, Carl Winter, Heidelberg, 1925, 4 vols.

_____ (1966). *Spinoza, Œuvres I*, trad. & éd. par C. Appuhn, Paris: GF Flammarion.

_____ (1985). *The Collected Works of Spinoza*, ed. & trans. by E. Curle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 (1996). *Traité théologico-politique*, établi par Fokke Akkerman, trad. par J. Lagrée & P.-F. Moreau, Paris: PUF.

_____ (1998). *L'Éthique*, trad par B. Pautrat, Paris: Seuil.

2. 기타 참고 문헌

진태원 (2010). 「변용의 질서와 연관—스피노자의 상상계 이론」,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논문집, 『철학논집』22: 103-139.

BENNET, Jonathan. (1983). *A Study of Spinoza's Ethics*, USA: Hackett.

BLACKWELL, Richard J. (1966). "Descartes' Laws of Motion," *Isis*, 57, 2 (Summer): 220-234.

CLARKE, Desmond M. (1977). "The Impact Rules of Descartes' Physics," *Isis*, 68, 1 (March): 55-66.

COSTABLE, Pierre (1972). "Essai critique sur quelques concepts de la mécanique cartésienne," *Démarches originales de Descartes savant*, Paris: J. Vrin,

- DESCARTES, René (1996), *Œuvres de Descartes*, ed. par Adam & Tannery, Paris: J. Vrin.
- _____ (1996). 『방법서설 ·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 이현복 옮김, 서울: 문예 출판사.
- _____ (2002). 『철학의 원리』, 원석영 옮김, 서울: 아카넷.
- GABBEY, Alain (1980). "Force and inertia in the seventeenth century: Descartes and Newton", in Gaukroger (ed.), *Descartes: Philosophy, Mathematics and Physics*, Sussex: Harvester Press, pp. 230-320.
- GARBER, Daniel (1992). *Descartes' Metaphysical phys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UEROULT, Martial (1970). "Métaphysique et physique de la force chez Descartes et chez Malebranche : 1e partie, Descartes," *Etudes sur Descartes, Spinoza, Malebranche et Leibniz*, New York: Georg Olms Verlag Hildesheim, pp. 85-121.
- _____ (1974). *Spinoza*, t. II, *L'âme (ÉthiqueII)*, Paris: Hildesheim, Georg Olms.
- HUYGENS, Christian (1977). "De motu corporum ex percussione", trans. by R. J. Blackwell in "Christiaan Huygens' The Motion of Colliding Bodies," *Isis*, 68, 4 (December): 574-597.
- KLEVER, W. N. A. (1988). "Moles in Motu, Principles of Spinoza's Physics," *Studia Spinozana*, 4: 165-195.
- KOYRE, Alexandre (1966). *Etudes galiléennes*, Paris: Hermann.
- LECRIVAIN, André (1977). "Spinoza et la physique cartésienne," *Cahiers Spinoza*, 1: 235-265.
- _____ (1978). "Spinoza et la physique cartésienne (2), La partie II des Principia", *Cahiers Spinoza*, 2: 93-206.
- LEIBNIZ, G. W. (1989). *G. W. Leibniz, Philosophical Essays*, trans. & ed. by Roger Andrew & D. Garber, Hackett Publishing

Company.

-
- (1969). *Gottfried Wilhelm Leibniz, Philosophical Papers and Letters*, trans. and ed. by Leroy E. Loemker, Dordrecht-Holland; Boston-U.S.A: D. Reidel Publishing Company.
- MARION, Jean-Luc (2006). “Cartesian metaphysics and the role of the simple natures,” in John Cottingham (ed.), *Cambridge Companion to Descar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INCIGUERRA, Lorenzo (2005). *Spinoza et le signe: La genèse de l’imagination*, Paris: J. Vrin.

ABSTRACT

How is Interiority Constructed from External Impacts?:

Cartesian Collision Rules and Spinoza's Concept of *Affectio*

Kim, Eun-Ju

As is suggested by the opposition between a life in conformity with the laws of one's own nature and that subjected to the power of external caus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interior and the exterior constitutes the backbone of Spinoza's ethics. This distinction is, however, the most elusive issue in his philosophical system.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interiority of an individual is presented above all in terms of corporeal individuality, and the individuality in terms of individuation in his *Ethics*, I inquire, instead of what is the exact criterion for this distinction, how the interiority of an individual is constructed in the universal mechanistic order as is claimed by Spinoza. More specifically, I elucidate the mechanism of 'affection' by which a body is preserved via its modification. I examine for this Spinoza's reformulation of Cartesian collision rules in one of his early writings, *Renati Des Cartes principiorum philosophiae*, to see how the collision model is mutated into the mechanism of affectio in his *Ethics*. I conclude that fluids, which are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lliding bodies, make room for the interiority of each individual while the individual still remains in the order of external determinations.

Keywords: collision, impact, interiority, external determination, affection(*affectio*), fluids, soft parts of the human body

